

01 교회소식

내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새겨져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자랑스러운 만민의 청년.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음의 사랑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데 있어 만나게 되는 여러 시련과 나 자신에 대해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한다.

03 기획특집

인간 경작의 모델, 이스라엘

교회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중 하나인 이스라엘 선교, 그 첫발을 내딛은 지 12주년을 맞아 연중 특집 기사를 게재한다.

04 간증

“참 신앙을 이뤄가니 행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 은혜를 나누니 온두라스 자성전이 이뤄지고 성도들과 함께 축복을 받아가는 엑토르 안토니오 아말라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872호 2019년 1월 1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거식증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한 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음식 먹기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며 심한 경우 영양소 부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에 이른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식증을 신속하게 치료받은 김혜은 자매(28세)의 간증을 통해 살아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초등학교 5학년, 그때의 일은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 약간 통통한 편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얼굴이 너무 살찐 것처럼 보여서 다른 아이들보다 예쁘지 않다고 느낀 것 입니다. 저는 곧바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식사량을 줄이니 자연히 살이 빠져 재미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살을 빼면 빨수록 중독되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고 둘러대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줘도 음식을 옷 속에 감추고는 다 먹었다고 말했지요. 또 잠깐 식탁에 앉는 시간을 빼고는 살 찢까봐 종일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에 놀란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클리닉 센터에 가셨습니다. “거식증입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 두 달 만에 제 몸무게가 25kg으로 줄어 뼈만 앙상하게 남으니 그야말로 시체와도 같은 몰골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늘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보였고, 머리카락은 영양결핍으로 한 움큼씩 빠졌으며, 밥잠을 이루지 못해 비명을 질러댔지요. 급기야 저는 어머니와 함께 권능의 기도를 받으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가 살렸다고 해서 무리하게 살을 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독한 마음은 버려야지...” 하시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도 잘 자고 식욕이 돌아와 이것저것 모든 음식을 먹고 소화도 잘돼 얼마 후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던 거식증을 기도로 치료받은 뒤, 저에게는 영육 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

혜가 마음 깊이 새겨졌고,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딸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최선을 다했지요. 중학교 때는 전교 3등,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 대학교 때는 과 수석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거식증은 치료도 어렵지만 완치는 더욱 어려워서 모델 중에도 사망한 이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저 또한 거식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크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자 각

종 대회나 공모전에 출전해 수상하였지요.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방송사의 광고 모델로도 발탁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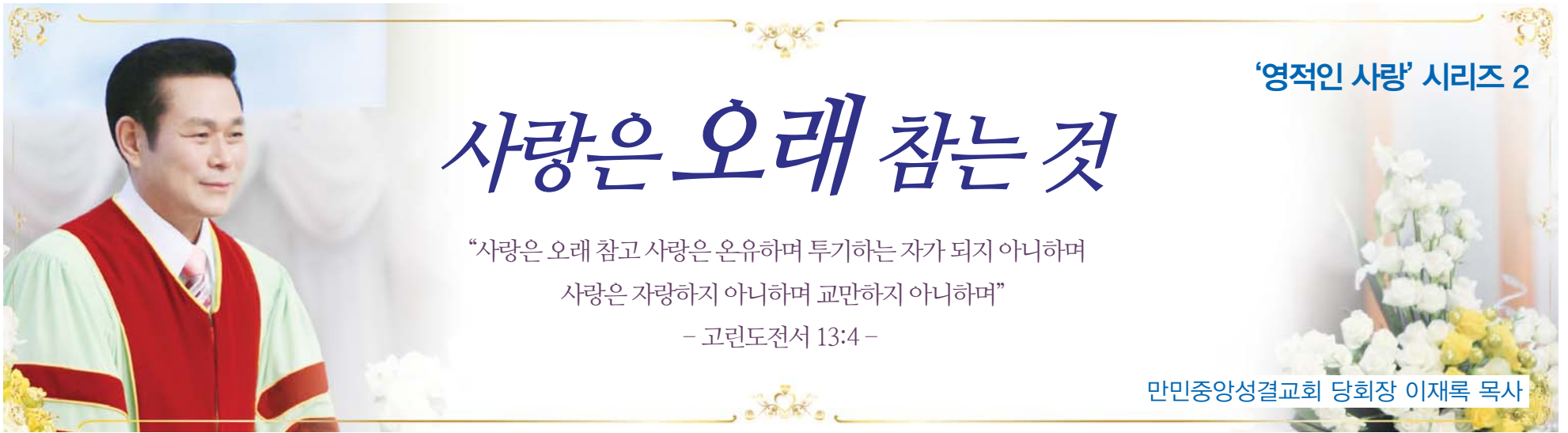
저의 꿈이자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송출하는 GCN방송의 아나운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축복된 일인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며 몸소 본이 되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거식증을 치료해 주시고 참된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photo view

▼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김혜은 자매는 거식증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치료받았다.





'영적인 사랑' 시리즈 2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요즘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참사랑, 곧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요. 참사랑은 우리 편에서 가지려고 애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에서 악을 버려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4~7절을 통해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항목 중 '오래 참음'이 부족하면 종종 상대를 절망케 합니다. 한 예로, 일을 맡겼다가 성과가 더디면 참지 못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의 15가지 항목 중 첫째로 오래 참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을 이루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로 돌아오거나 막대한 손실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사랑스럽기는커녕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런 사람까지도 참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헐뜯고 미워하며 애매히 곤경에 빠뜨린다 해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참고 사랑해야 하지요.

1. 오래 참는 것은 영적인 사랑의 시작

이처럼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참긴 참는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오래 참았는데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 낙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이나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진리로 온전히 이루었다면 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즉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비진리의 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데 있어 만나게 되는 여러 시련과 나 자신에 대해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오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지요.

요즘에는 상대가 자신의 신변이나 재산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쉽게 고소합니다. 그 상대가 아내 혹은 남편, 혈육을 나눈 부모, 자녀인 경우도 많지요. 도리어 참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산다”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 5:39~40)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선을 베풀라고 하지요.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큰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2. 무한대의 오래 참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미움, 혐기 등의 감정을 억지로 꼭꼭 눌러 참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해 버립니다. 내성적이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소위 '화병'이라는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기도 하지요. 이런 참음은 스프링을 눌러 놓았다가 손을 떼면 다시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래 참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참는다는 말 자체가 필요치 않는 참음이지요. 미움, 서운함 등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기게 하는 근본 악을 빼내 버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악이 없고 영적인 사랑만 가득하면 원

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애당초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마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통 어둡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아무리 이해 못할 사람이라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어떤 허물이나 단점이 있어도 싫지 않지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악하게 행동한다 해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꺾져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린 스테반 집사와 같은 마음이지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답변하시지요(마 18:21~22). 이는 70×7, 즉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은 영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한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작음을 나타내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 혹 화를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즉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고 털어 버리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정이나 혐기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참고 노력하면 마음이 점점 진리로 바뀌고 영적인 사랑이 자라가지요.

마음 깊이가 뿌리내린 죄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불같이 기도할 때 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무리 미운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8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사람이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을 베풀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행해 나가면 어느새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누구와도 걸림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으니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눅 17:21).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때 '천국 같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선과 사랑만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오래 참

을 일이 없고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하지요. 마음에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일수록 오래 참을 일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룬 만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선과 사랑만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할 일도 없고 화를 내거나 짜증 낼 일도 없지요.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 자체가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오래 참을 일이 없으

신데 굳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변화되기를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립니다 >>>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맞이 특집기사' 연재

2019년은 교회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중, 이스라엘 선교의 첫발을 내디딘 지 12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만민뉴스는 연중 특집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후에 펼쳐질 더 크고 놀라운 섭리를 기대해 본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간 경작의 섭리가 담긴 땅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는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자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셨다. 범죄한 아담 이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의 손자인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살 때에는 뛰어난 민족으로서 큰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 전 세계로 흩어져 떠돌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며 친히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지만,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국가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이후, 이스라엘 선교의 사명에 대해 알려 주시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마침내 복음의 회귀가 이뤄질 것을 말씀하셨다.



본격적인 이스라엘 선교를 앞두고 허락하신 '2004 만민 성지순례'

그리하여 1989년부터 시작된 성지순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기후로 주관해 주셨을 뿐 아니라, 밝은 영감 속에 마치 성경 속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주셨다.

특히 '2004 만민 성지순례'는 "주님의 공간과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많은 영의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하셨고, 이는 2007년에 있을 이스라엘 선교를 앞두고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다.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와 주변 마을들을 돌아보면서는 돌 하나 풀 한포기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은혜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러나 겐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비아돌로로사를 거쳐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와 시신이 안치된 곳을 돌아보면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2007-2009 이스라엘 선교'

마침내 교회 개척 25주년을 맞는 2007년 7월 25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선교팀은 나사렛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다.

이에 현지 목회자들은 위로와 힘을 얻고 연합하여 2008년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을 결성하였고, 2009년 9월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합대성회를 개최하였다.

강사 이재록 목사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임을 담대히 선포하였으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많은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복음이 회귀하리라는 성경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진 크리스탈포럼이 주축이 된 '이스라엘 선교'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이후 이스라엘 기독교계는 활기를 띠게 되었고 찬양 페스티벌, 부부 세미나, 청소년 세미나 등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줄 때 회개와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러시아, 불가리아, 핀란드 등 해외에서도 집회를 인도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

한편 크리스탈포럼에서는 목회자 세미나, 찬양 페스티벌,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행사 등에 우리 교회 주의 종과 선교팀을 초청함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만민하게 수련회, 교회 창립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만민의 사역을 배우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7년 환난에 떨어지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 구원의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하니 지성전을 이루고 축복도 받아갑니다!

2007년 초, 온두라스 JBN TV(사장 에스테반 한달 목사)에서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명 깊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온두라스는 물론 마주 전역의 어느 목회자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생명의 꼴을 찾아 만민의 양 떼로 등록하고
이처럼 생명력 있는 말씀의 근원지를 찾아 인터넷을 통해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믿음의 분량' 등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은 물론, 천국 소망이 넘쳤습니다.

2011년, 인터넷으로 교회에 등록하였지만 사차관계로 인해 생방송예배에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민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교회를 찾게 되었지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몇몇 교회에 다녀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하니 만민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 갔습니다.

2015년 11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만민중앙교회 교역자 화장이신 이수진 목사님이 온두라스에 방문하여 집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차례의 집회에 참석하며 성경 말씀을 명쾌하게 전해 주시는 성결의 복음에 감사했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 지성전을 세워

그러던 어느 날, SNS(소셜미디어) 상에 당회장님의 말씀을 공유해 주는 까를로스 레온 형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권해 준 교회 모임에도 가 보았지만 제 마음에는 충족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만민중앙교회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꼭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2017년 9월,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몇 명과 주말마다 서로의 집에서 돌아가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콜롬비아만민교회 담임 장정연 목사님과 연결되어 유튜브를 통해 콜롬비아만민교회 모든 예배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각종 예배에 함께하였는데 저희 외에도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등 30-40 곳에서 동참하고 있지요.

2018년 3월에는 장소를 따로 얻어 지성전을 세우게 되었고 현재 18명 정도의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치료와 응답뿐 아니라 재정의 축복도 받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안토니오 아야라 성도 (51세,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치유, 응답, 축복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블랑카 플라로스 여성도(45세)는 갑자기 극심한 척추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도움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환자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몸도 정상이 되는 체험을 했지요.

이시스 조셀리 빠스 여성도(24세)는 피부병을 치료 받고자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보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변화하고자 힘썼지요. 그 결과 시공을 초월한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온전히 치료되어 천국 소망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페르난도 마르티네스 남성도(37세)는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온두라스 연합대성회에 참석하여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목도하며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의 감동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일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실천하니 재정의 축복도 받아가고 있지요.

또한 극심한 두통을 치료받았으며, 그의 아내는 화면을 통해 당회장님의 얼굴을 뵈는 순간 어깨 통증이 사라지는 신기한 체험도 하였습니다.

가정에도 참 신앙을 이뤄가는 행복이 넘쳐

이처럼 온두라스에 지성전이 세워진 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만민의 말씀은 저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밝혀 주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지 배워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며, 친히 본을 보여주신 당회장님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만민의 양 떼가 된 이후로 자녀들이 변화되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열심히 변화되기를 힘쓰며 충성하니 건강과 재정의 축복 등 영육 간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민의 양 떼로 불러 주셨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최고의 것을 얻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성결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을 많은 이에게 널리 전파하길 소망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원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문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선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민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사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겸안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침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248-6521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춘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